

진도군, ‘산후 조리비 80만 원’ 첫째아부터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고 출산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취지

진도군은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접야,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출산을 제고하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은 한 산모는 “첫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부담이 컸는데,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아 조리원비 걱정을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진도에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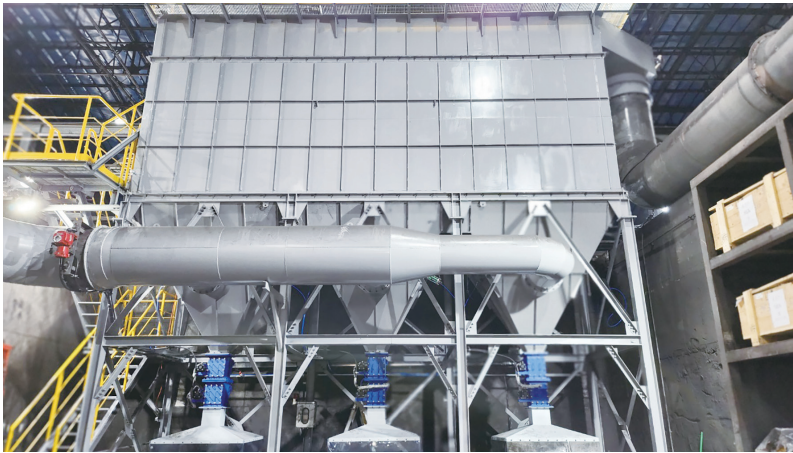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광양시·대기업·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위해 ‘맞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과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 4개사가 환경부 공모사업인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새로운 환경 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광양시 등 관계기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파악해 최종적으로 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인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4개사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총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억 2,300만 원을 출연하고, 환경부와 광양시가 각각 1억 7,000만 원, 중소기업이 8,5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재정과 환경 관리 여건이 열악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실제 투자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반기는 모습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구례군 산동면민, 지리산 온천관광단지 위기 극복 결의문 발표

구례군 산동면 주민들이 산동오일시장에서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침체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6월 27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300여명의 산동면민들이 참여하여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국립공원 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지역주민 참여 보장,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동면민들은 먼저 15년 전 제정된 국립공원 정책이 현재 지역 현실과 관광 수

요, 교통약자 접근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케이블카 등 주요 사업 결정 과정에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보장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몰락이

산동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구례군은 산동면 온천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27홀 규모 골프장 조성, 케이블카 설치 추진, 나들이 워터파크 시범 운영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이나, 민간 투자 부진과 환경부의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 신청은 환경부의 여러 차례 반려로 무산됐으며, 온천관광단지 조성률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동면민들의 결의문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절박한 호소로 평가된다. 구례군과 주민들은 이번 결의문을 계기로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암군청년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가 26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청년 소통 교류의 장, 청년정책 실험무대, 청년문화 구심점 등으로 청년친화도시 비전을 실현한 지난 1년을 홍보하고 나섰다.

달빛청춘마루는 연면적 2,211㎡, 지상 3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1층에는 청년센터가, 2~3층에는 신규 공직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이 들어섰다.

1층 청년센터는 다목적 강의실, 미디어실, 공유주방,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청년 누구나 무료로 자율·창의적

영암군 청년소통센터, 개관 1년 청년문화 구심점으로

청년 소통교류·정책 실험무대로 각광... 저녁 운영으로 이용 늘어

모임·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창업 준비생 등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연장 운영 이후 약 1,384명이 저녁 시간에 소모임, 프로젝트 회의, 자기계발 활동 등으로 센터를 찾으며, '퇴근 후 청년

공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달빛청춘마루는 개관 이후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참여 확대에 주력해왔다.

진로탐색 도우미, 마음건강상담소, 수요자 중심 클래스 등 청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고, 청년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영암군의 19~49세 청년인구는 15,29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7%를 차지한다. 전남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청년 유출은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다.

영암군은 이에 대응해 청년소통센터를 기반으로 주거, 일자리, 문화, 참여를 아우르는 '전주기 청년정책'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이 25일 남면 분향리에서 신품종 방울토마토 '티에스(TS)샷별' 품평회를 열었다.

"TS샷별"은 ㈜부농종묘가 개발한 대추형 방울토마토다. 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등 병해에 강한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 분류된다. 꽃받침이 강하고 경도, 저장성, 맛도 우수해 시장성이 뛰어나다. 품

장성군, 병해 강하고 맛 좋은 신품종 방울토마토 시범재배

평화에 참석한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들은 "TS샷별"의 수확 품질과 생육 상태 등을 직접 살펴보고 향후 시범보급 방안, 정착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농업인 고월주씨는 "병해를 잘 이

겨내고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신소득 품종으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성군은 올해 총 7농가 2.7ha(헥타르) 규모 "TS샷별"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한

다. 상반기에 1.8ha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0.9ha는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신품종 'TS샷별'이 소비자와 농업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 적응력과 상품성을 갖춘 유망 품종의 정착·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장흥힐링테라피센터 개관’ 복지·치유 관광 거점 기대

문화생활 지원, 테라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26일 '장흥힐링테라피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장흥읍 중심지에 연면적 1,29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구성됐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와 생활공예전시관이 마련돼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2층에는 동아리실과 마을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 주민 대상 교육, 훈련, 홍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3층에 위치한 테라피실에서는 생약초

를 활용한 힐링 및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장흥읍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흥힐링테라피센터가 지역 문화와 복지 증진,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생약초를 활용한 치유 공간으로서 장흥의 매력을 외부에 알리는 새로운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센터 운영을 장흥군신활력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치유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